700년 불연, 지공 화상 존상 통도사 봉안

〈佛緣〉

7월 8일, 설법전 및 삼성각
금강계단 보살계 설행 인연
봉안식 앞서 율원 복장의식
한·인도 교류 새 이정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7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 삼성각에서 열린 '지공 화상 존상 봉안식'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고량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등 내외빈이 존상 제막을 하고 있다.

700여 년 전, 고려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인도의 고승 '지공 화상'이 존상의 모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과거 지공 화상이 직접 보살계를 설행했던 영축총림 통도사에 존상이 정식 봉안됨에 따라, 한국과 인도가 700년을 이어온 불교 교류의 역사에 뜻깊은 이정표가 세워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7월 8일 설법전과 삼성각에서 '지공 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안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아울러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아시시 바베 인도 국제문화연구센터(ICCS) 소장, 국제불교도연맹(IBC) 관계자 등 내외빈이 동참해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지공 화상(指空, ?~1363)은 14세기 후반 고려 충숙왕 때 한국을 방문한 인도의 고승이다. 특히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예불을 올리고 보살계를 설하며 한국불교의 계맥 전수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나옹, 백운, 무학 대사 등 고려 후기 불교에 새 바람을 일으킨 삼화상(三和尙)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번에 봉안된 지공 화상 존상은 화상의 모국인 인도에서 직접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인도 국제문화연구센터와 국제불교연맹의 지원을 받아 동(銅) 재질로 제작됐으며 폭 40cm, 높이 50cm 규모다. 2024년 4월 인도 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존상 조성 불사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학술 검토와 자문을 거쳐 한국과 인도의 긴밀한 협력 아래 2년여 만에 원만 회향했다.

본 행사에 앞서 통도사는 지난 7월 1일 삼성각에서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한 율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지공 화상 존상 복장의식을 봉행하며 성보로서의 의미와 생명력을 더했다.

설법전에서 열린 1부 봉안식은 주지 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존상 기증서 전달, 내빈 축사, 종정 성파 대종사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삼성각으로 이동해 지공 화상 존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사부대중은 새롭게 모셔진 존상에 헌향하며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특히 제막식 이후 이어진 행사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 사리탑을 참배하며 봉안 행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성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공 화상과 통도사의 각별한 인연과 더불어 종교의 참된 역할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인연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오랜 역사를 짚으며 "통도사에 지공 화상 존상을 모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곳을 다녀갔기 때문이 아니라, 지계 청정도량인 금강계단에서 문수보살 무생계를 설함으로 한국불교의 계단(戒壇)과 계맥 전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했다.

이어 "언어도 통하지 않고 교통도 없던 시절,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법을 전한 선사들의 간절한 원력을 깊이 새겨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불교가 더욱 밀착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덕 스님은 환영사에서 "특별히 관음재일을 맞아 사부대중과 함께 기쁜 행사를 열게 되어 더욱 환희롭다"며 "기존 삼화상 진영이 봉안된 곳에 지공 화상 존상을 함께 모시게 된 인연으로, 한국과 인도의 종교와 문화가 활발히 소통하고 왕래해 세계 평화와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금강경 천일기도 원력 '자비 복지'로 회향

부산 행복선원, 복지시설 건립 발원
법타 대종사 증명 보살계 수계법회



부산 행복선원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건립이라는 원력을 품고 이어온 금강경 독송 1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행복선원(주지 윤광 스님)은 7월 5일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 1000일 기도 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기도 회향의 환희심을 보살행으로 이어가겠다는 신도들의 다짐을 담아 특별 수계 법회로 이어졌다. 영천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가 증명법사로 법좌에 올랐으며, 98명의 불자가 연비를 받고 불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법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타 스님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지니는 순간이 곧 참된 불자로 다시 태어나는 때"라며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이웃과 공경하며 살아가기 위한 근본 도리"라고 설했다. 이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주상보시'를 언급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가꾸어 주변에 기쁨을 전하는 것이 곧 참된 보살행"이라고 당부했다.

행복선원의 1000일 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을 서원으로 삼고,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져왔다. 행복선원은 기도 기간 중 사단법인 '카루나'를 설립해 원력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무료급식을 비롯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환경보호 운동을 꾸준히 펼치며 복지 도량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주지 윤광 스님은 1000일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준 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윤광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신도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오늘의 회향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회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달라이라마 91세 장수기원 법회

7월 6일, 부산 관음사서
장학금 2100만원 전달



달라이라마의 91세 생신을 축하하고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법석이 부산 관음사에서 펼쳐졌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7월 6일 원통보전에서 '달라이라마 성하 91세 생신 축하 및 장수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달라이라마가 평생 강조해 온 비폭력과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과 티베트 불교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에서 수행 정진 중인 티베트 스님 30여 명을 비롯해 한국과 티베트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다. 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관세음보살 구루요가 기도, 만달라 및 까닥 공양, 관음의식 기도 등 티베트 전통 의식과 한국 불교 의례가 함께 진행됐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자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자비를 실천해 모든 중생이 행복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전하며 "달라이라마 성하의 가르침과 티베트 승가와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겠다"고 서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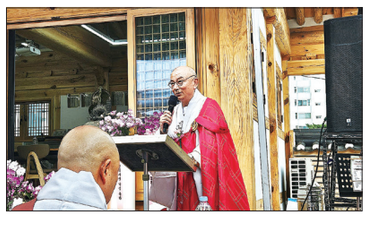
한국티베트센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은 법문에서 "남을 이롭게 하려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성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생신 선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교의 핵심인 자비와 공성의 지혜를 함께 닦으며 중생을 위한 이타행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관음사는 하안거 기간을 맞아 국내에서 수행하는 티베트 스님들에게 승보공양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전법 원력을 응원했다. 아울러 동학사 팔정회(수현 스님 외 15명) 소속 스님들이 16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총 2100만원의 기금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불곡사 '우담문화관' 낙성

7월 8일, 복합문화시설 조성
"불교문화·신행 활성화 앞장"



창원 불곡사(주지 도홍 스님)는 7월 8일 우담문화관 및 관람객 편의시설 낙성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문화 발전과 신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주지 도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오늘 뜻깊은 낙성식을 맞게 됐다"며 "우담문화관은 불곡사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는 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중 어른 스님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누구나 차 한잔의 여유를 나누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우담문화관이 수행과 휴식,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주 근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담문화관 낙성은 건물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모여 이룬 수행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이 포교와 수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행도량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정신 연화학당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담문화관은 불자들의 신행공간이자 지역 주민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문화공간"이라며 "이웃과 함께 자비를 실천하고 수행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도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담문화관은 문중 선대 스님들의 유품 전시 공간과 휴식·문화공간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신도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행 및 문화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스마트폰 끄고 마음 켜다"

부산 홍법사, 대학생 선명상
8월 21~23일, 20명 대상으로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학업과 진로 등 현실적 고민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치유의 장을 마련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한 사찰에서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홍법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선명상 템플스테이 '소리와 침묵으로 나를 깨우다'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명상 대중화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극심한 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각종 디지털 자극에 노출된 청년 세대에게 사찰을 마음 회복의 베이스캠프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템플스테이와 달리 참가자 전원이 '디지털 디톡스'와 '묵언수행'에 동의해야만 동참할 수 있는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2박 3일 동안 일상적인 대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몸과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백미는 2일 차 저녁에 열리는 '주지 스님과 마음 선문답'이다. 참가자들이 묵언수행 중 내면에서 끌어올린 질문을 미리 작성하면,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불교적 지혜와 선명상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이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접수 및 문의는 홍법사 템플스테이 사무국(010-8457-0343)으로 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동림선원, 10년 불사 결실

지장전·불상 봉안 천일기도 입재
"김해 대표 포교 도량으로 성장"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은 7월 5일 3층 대법당에서 '10년 대작불사 3천일 기도 회향 및 지장 천일기도 입재 대법회'를 봉행했다.

동림선원은 2018년 4월 30일 '10년 대작불사 3천일 기도'에 입재한 후 대웅전 삼존불 점안, 목조원불 천불 조성, 범종·금고 봉안 등을 차례로 회향했다. 특히 올해 5월 문화공간 '동림'을 준공하며 10년 불사의 결실을 맺고, 이날 3천일 기도 회향과 함께 지장전 건립 및 지장보살 봉안 불사를 위한 새로운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불자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장엄한 도량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많은 이들이 불연을 맺는 수행·포교 도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약사정사 '만오밥상' 자비공양

7월 5일, 어르신 200명 식사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 배식 봉사 동참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가 만오 스님의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올해 4월 설립한 무료급식소 '만오밥상'에서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약사정사는 7월 5일 상봉동 '만오밥상'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급식 무료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진여 스님과 약사정사 신도회, 사단법인 원명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이른 아침부터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손길로 공양 준비에 나섰다. 이어 배식과 식사 보조, 정리정돈까지 맡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도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주지 진여 스님은 "무더위와 외로움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에 어르신들께 따뜻한 공양을 올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한 그릇의 밥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자비의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불교문인협회 37년사' 출판기념회

37년 역사 담은 사료집 발간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박숙자)가 7월 1일 부산 서면의 한 식당에서 〈부산불교문인협회 37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37년 역사를 집대성한 사료집 발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편찬위원장 혜총 대종사, 박숙자 이사장, 차정연 발행인을 비롯해 능지 스님, 보우 스님, 박혜숙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이사장과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부산불교문인협회의 문학적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찬위원장 혜총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꾸어온 역사가 앞으로 더욱 큰 결실로 이어져 부산 불교문학의 위상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숙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37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회원의 원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모여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37년사가 부산불교문인협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불교문학의 정신을 전하는 소중한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